

◇김복진 씨 작품인 금산사 미륵불.

금산사 미륵불 근대조각 '백미'

故 김복진 탄생 100주년展

남양주 모란미술관



좌파적인 진보 사상을 추구하면서 우리 전통 불교사상에 심취, 금산사 미륵불 등 20세기 불교예술의 신경지를 개척했던 근대조각가 김복진(1901~1940)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미술관에서 31일까지 열린다.

김씨는 조각가로 활동하기 전 일제시대 문예단체인 토월회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을 주도하며 항일운동을 하다 6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 불교에 귀의하고 출소이후 불상 조각에 적극 나섰다. 김씨의 금산사의 미륵불은 20세기 근대한국불상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며, 시멘트로 조성했던 법주사의 미륵불은 현재 청동불로 개보수 되었지만, 그 조형적 토대를 김씨가 마련했다. 이밖에도 계룡산 소림원의 석고 미륵불, 조선미전 특선작인 전신 여인상 백화 등으로 명성을 날렸으나 4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김씨는 40여점의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쟁때 금산사와 소림원의 미륵불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소실되었다.

32상 80종호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의 창의성을 가미하고, 입상 위주의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흙, 석고,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를 작품에 이용한 그의 투철한 작가적 실험정신을 이번 전시에서 느껴볼 수 있다. 사진으로만 남은 18점의 작품을 비롯해 청동으로 다시 주조한 소림원 미륵불과 그의 수제자 윤효중(1915~1967), 도쿄미술대학 후배인 김경승(1915~1992) 등 근대 조각가 1세대의 작품이 전시된다. (031)594-8001

국립무용단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 9월 2일까지 국립극장

전통춤 재창조 '실험무대'

국립무용단은 13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한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춤을 중심으로 그 춤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아가는 실험무대를 마련한다.

'대화가 있는 무대 – 바리바리 촘촘 디딤새'(촘촘하게 내딛는 잦은 발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가 바로 그것이다. 승무, 살풀이, 춘앵전 등 전통 한국 춤이 오늘의 무용가들에게 어떻게 전승되고 재창조되는지, 한국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자리다.

이번 무대는 작품만 보여주는 여느 공연과 달리 하나의 주제를 정해 3일 동안 설명과 리허설 및 공연, 창작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작품화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꾸며진다.

예를 들어 한영숙류의 승무를 중심으로 음양오행과 승무의 특징 및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춤의 호흡법을 찾아보게 될 첫 공연 '음양오행으로 본 전통춤의 호흡 찾기'(13일~15일)는 이 주제에 대한 안무가와 출연자 및 관객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리허설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오행(木, 火, 土, 金, 水)의 특성을 중심으로 상생과 상극의 인간 삶을 표현하는 '오행으로 가는 길' 이라는 창작 작품을 이끌어 낸다.

'춤과 음악으로 풀어보는 동작변주' (16일~18일)에서는 무용음악의 개념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때방류 살풀이를 통해 음악의 구성에 따른 동작의 흐름을 실험한다.

'전통 춤에 숨어있는 호흡 찾기' (22일~24일)는 춘앵무의 특징적인 호흡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에서 몽환적인 주제를 이끌어 내어 '몽중인' 을 창작해 본다. '전통 춤 용어에 숨어있는 이미지 찾기' (25일~27일)는 살풀이의 각종 춤사위들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창작 춤 '분침하는 여인' 을 만들 예정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한국 춤이 오늘날에도 그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무용단의 이번 무대는 무형문화재라는 고정불변의 텍스트를 통해 그 변용 가능성을 실험하고, 끊임없는 창작정신만이 전통을 전통답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젊은 춤꾼들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02)2274-3507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바리 바리 촘촘 디딤새' 는 여느공연과 달리 하나의 주제를 정해 3일간 설명과 리허설,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작품화 한다.

"만해의 민족사랑 오늘에 잇자"

백담사 '2001 만해축전' … 심포지엄·공연 등 열려

청량한 물소리와 솔바람 소리가 시원한 백담사에서 5일~8일까지 열린 제3회 만해축전은 만해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되살리는 자리였다.

만해스님이 처음으로 불가와 인연 맺은 곳이자, 〈님의침묵〉의 산실인 백담사 도량에서 불자와 문인, 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만해축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만해스님 탄생 122주년, 열반 57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축전은 만해학 연구의 폭과 깊이를 심오하게 하는 학술 심포지엄, 남북통일 발원대재, 전국고교생 백일장 등 더욱 다양해진 행사로 꾸며졌다. 또한 제5회 만해상 시상식도 거행돼 평화부문에 故 정주영 씨(현대그룹 창업자가, 실천부문 백낙청 씨(서울대 교수), 학술부문 정영호 씨(한국교원대 명예교수), 문학부문 이형기 씨(동국대 명예교수), 포교부문 정우 스님(일산 여래사 주지) 등이 수상했다.

특히 올해 축전기간에는 전국염불만일회 제6차 성지대회 겸 국태민안 남북통일 발원대재도 함께 진행돼 선사의 민족사상과 통일사상을 기렸으며, 의상스님과 만해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연구할 의상만해연구원도 모습을 갖추어 만해학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가다듬었다.

이같은 만해축전의 열기는 축전 자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계와 문학계에서 추진 중인 만해문학박물관 건립과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얼 선양사업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2001 만해축전에서는 불자와 문인, 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군자展'

호암미술관, 연말까지

호암미술관의 여덟 번째 소장품 테마전 '선인들의 오랜 벗, 사군자' 전이 연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에는 사군자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된다. 조선 제일의 묵죽화가로 알려진 탄은 이정(1541~1622), 이정을 계승한 수운 유덕장(1675~1756), 난초 그리기와 서예의 관련성을 더욱 강조한 추사 김정희(1786~1856), 매화 그림의 대가 우봉 조희룡(1789~1866), 난초 그림의 쌍벽 흥선 대원군 이하응(1820~1898)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또한 호암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사군자 그림들도 선보인다. (031)320-1845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주 내설악 백담사에선 제 3회 '만해축전' 이 열렸다. 백담사는 만해(卍海) 한용운 스님이 시집 〈님의 침묵〉을 집필했던 곳이다. 그 역사적 현장에서 벌써 수 년째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나도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집에서 조용히 만해의 시를 읽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시집 대신 시인이자 서울대 영문과 교수였던 송욱이 저술한 〈님의 침묵 전편해설〉을 찾아 읽기로 했다. 다행히도 초판이 나온 지가 27년이나 지난 이 책을 시내 서점에서 구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대하는 이 '책다운 책' 을 읽어나가는 동안, 만해의 시에 대한 송욱 교수의 지극한 애정과 깊은 이해가 감동적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먼저 만해의 시세계를 잘 요약한 서문을 소개한다.

"우리 민족 전체의 대종사인 만해 한용운 하면 우리는 으레 시집 〈님의 침묵〉을 생각하게 된다. 이 시집은 두말할 것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사랑의 시로서 엮은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시로서 이 시집을 즐겨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를 해명하는 일이다.

한용운 '님의 침묵' (1)

모국어로 빚은 석굴암 같은 깨달음의 시

시집 〈님의 침묵〉이 지닌 깊이는 첫째로 불교의 그리에 대한 만해의 심오한 지식과 지혜에서 우러나왔다. 둘째로 그 깊이는 선(禪)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향시 마치 물결처럼 용솟음치고 있다. (…) 결국 이 시집 전체의 주제는 '의정(疑情)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이기도 하다. (…) 지금까지 오도(悟道)의 경지는 모두 문답이나 시의 형식을 빌려 어려운 한문으로 표현된 것 뿐이다. 그러나 만해는 선종(禪宗) 사상 처음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사랑의 시' 로서 드러내어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까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놓았다. (…) 이 시집에 실린 작품 하나하나는 사랑의 시인 동시에, 작자가 선사로서 우리에게 먼지는 화두, 즉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요약해서 각 작품을 하나의 구슬에 견줄 수 있다면, 그 구슬은 세 가지 빛을 발산하고 있다. 첫째는 주로 선(禪)과 관계가 있는 불교사상, 둘째는 의정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선의 체험, 셋째는 말과 이미지로서 나타난 시가 그것이다. (…)

또한 깨달음의 증험을 내용으로 한 시를 증도가(證道歌)라고 하는데, 시집 〈님의 침묵〉은 전체로서 하나의 증도가를 이루고 있다. (…) 만해의 시집은 사랑의 시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를 〈사랑의 증도가〉라고 부를 수 있으리라. 따라서 그는 이 시집을 통하여 선의 세계를 처음으로 인간화하고 역사화 함으로써, 동시에 그것을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 이 시집처럼 유구한 우리 불교전통이 우리말로서 시화(詩化)된 실례도 이 나라의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다. 만해의 시집은 예술품으로서는 이십세기에 모국어로 이룩된 석굴암과 같지만, 사상의 표현으로서도 우리 문학사는 물론 세계 사상사에 길이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문학평론가

티베트 수미산의 신비를 찾아서

잉크를 풀어 놓은듯한 짙푸른 하늘, 눈부신 황금탑과 거대한 포탈라 궁전, 신들의 세계, 전설의 불교왕국등 티베트는 신비의 베일에 싸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실크로드 여행사에서는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과 아뇩다지로 지칭되는 마나사로바 호수등 경전상에 나오는 수미산의 세계를 찾아 보는 순례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순례는 수미산의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순례일정이 될 것입니다.

수미산 순례 21박22일

◇ 출 발 일 : 9월 4일 ◇ 여행경비 : 410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시가체-라체-사가-파앙-마나사로바호수-수미산-파앙-사가-라체-시가체-라사-성도-인천

티베트 성지순례 7박8일

◇ 출 발 일 : 9월 8일 ◇ 여행경비 : 195만원
◇ 일 정 : 인천-성도-라사-페탕-상예사원-라사-성도-아미산-성도-인천
◇ 특 징 : 라사의 포탈라궁전, 죠캉사원, 세라사원, 드레풍사원, 노브링카궁전, 티베트 최초의 사원으로 삼예의 논쟁으로 유명한 삼예사원, 티베트 최초의 왕국 융부라캉, 왕가의 계곡등 티베트 불교 순례일정



(주) 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빌딩 505호 TEL. (02)720-9600

티베트 · 수미산 사진집 발간

■ 저자 : 실크로드 여행사 이상원
수년간 촬영한 사진으로 티베트 불교와 수미산의 세계를 사진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 및 수미산을 순례하는 일정으로 사진 및 지도, 탱화등을 수록하여 티베트 순례시 유용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정가 10,000)
항상 저희 여행사를 아껴주시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이사 이상원 합장

완벽한 일정!! 철저한 준비!! 정성어린 안내!! 실크로드는 최선을 다해 모실 것입니다